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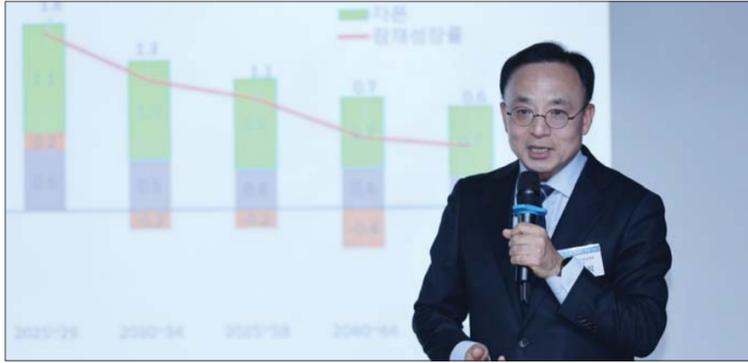
저성장·저금리 시대 진입... “투자보다 근로소득 중요”

기조강연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올해 韓경제 2% 안팎 성장했지만 일시적 반등, 구조적 문제 그대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 갖춰야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과도하게 불어난 부채와 자산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낮은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한국 경제도 단기 회복과 별개로 구조적 저성장·저금리 흐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100세 시대에는 금융자산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만큼 근로소득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4일 메트로신문(메

트로경제)이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기조강연에서 세계 경제를 먼저 ‘부채 성장의 후유증’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충격 당시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으로 침체를 막았지만, 그 결과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신흥국은 기업부채가 크게 불어났고 한국 역시 기업·가계·정부 순으로 부채 부담이 누적됐다는 진단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은 2020년 마이너스 2.8%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은 뒤 2021년 6.3%로 급반등했지만,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3.3%, 3.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0~2019년 연평균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는 여기에 미국 자산시장 고평가까지 겹쳐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채권 시장 거품은 상당 부분 꺼졌지만 주식과 주택시장에는 아직 거품이 남아 있

다”며 “세계 경제는 앞으로 5년 정도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과 ‘구조적 둔화’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작년 1.0% 성장에 그쳤지만 올해는 2% 안팎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순환적 회복이지 구조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한국 성장률은 1.9%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소비도 다소 회복되면서 경기 반등이 나타났지만, 수출 증가율은 1분기를 정점으로 2분기부터 서서히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본질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과거 10% 수준에서 현재 1.8% 안팎까지 떨어졌다”며 “인구 고령화와 노동·자본 증가세 둔화가 겹치면서 2040년에는 0%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고 말

했다.

금리 전망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최근 금리 반등을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국내 전체적으로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자금잉여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가 가장 힘줘 말한 대목은 ‘근로소득’이다. 김 교수는 2013년 2억원을 넣은 즉시연금의 월 수령액이 51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든 사례를 들며 “한 달에 30만원을 버는 일이 금융자산 2억원이 만들어내는 현금흐름과 비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자산도 잘 굴러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직을 오래 유지하고 또 하나의 업을 만들어 100세까지 근로소득을 얻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패널토론

불확실성 커진 시장... “자산 재설계해야”

늦어도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우려 가족 금융채취 비중 높아 ‘주의’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핵심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는 다양한 테데크 전략이 나왔다. ‘초고령 사회와 생산적 금융,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강연에 이어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패널 토론은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

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종연 하나은행 Gold PB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중동사태’를 비롯해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익 겸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겸임교수는 “주식시장에서 부분적으로 거품이 형성된 것 같다. AI와 관련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고, 사모펀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정책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가가 오르면 바로 다음분기부터 물가가

오른다.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내려가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더더욱 떨어진다. 유가상승은 시차를 두고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빠르면 올 상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금융채취’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문자나 스미싱,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그리고 친족이나 지인이 금융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금융채취’가 그것이다”라며 “금융채취는 80~90%가 자녀에게서 발생한다. 가족이라고 해도 내 금융자산을 가로챌 수 없는 시스템



‘2026년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사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종연 Gold PB팀장(하나은행 Club1 도곡 PB센터지점). /메트로신문

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여신거래안심차단, 비대면계좌개설 차단 등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올해 주가가 높아진 이유는 자기자본수익률(ROE)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년 대비 5배의 수익을

내면서 코스피 전체 이익도 2배 올라갈 것”이라며 “반도체, 조선업 등 국내 주요 산업은 경기 변동성에 취약하고, 중복상장 등 기업 거버넌스 이슈도 있다. 정부가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가고 있고, 기업들도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는 만큼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조금씩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초고령사회 진입... 금융 구조 전환 시급”

축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혁신기업 투자·경제성장 연결 구조 구축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있다”며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도를 우려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에서 2050년 58.1세, 2072년 63.4세로 높아질 전망으로, 인구 절반이 60세를 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산구조다. 신 처장은 “자산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편중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 구조는 장수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구조가 노후 불안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 구조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혁신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가치 중심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 투자 기반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머니무브 시대... “자산 재편의 실마리 찾길”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불장 속 투자 전략 재정립 시점

최근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불장입니다. 어딜 가나 화제입니다.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주식투자도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다양하게 읽고, 생각이 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흐름에 관심을 갖고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보를 빨리 취척하는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미래의 파급력을 고민합니다. 작년 이맘때 코스피는 2600선이었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시가총액도 2800조원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30조원의 수익을 거둬며 고갈 시기가 8년 늦춰졌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소액주주가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민주의 상승은 증산층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1년 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법개정으로 대주주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부동산을 누르고 증시를 키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니 무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편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럼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길을 안내하고, 포트폴리오 재편의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승진 기자